

SAMC | LAW REVISION

1. 이란, 600여개 품목 관세율 상향조정

이란이 6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은 해당 품목의 변동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매년 많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데 올해도 600개 이상 품목의 관세율을 올리는 한편, 지난해 변경한 품목의 절반가량을 다시 조정했으며, 쌀과 버터, 고기, 콩, 바나나와 같은 기본적인 상품의 관세율은 내렸다. KOTRA는 이란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산업과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고관세율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2. 관세청-환경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업체계 구축

관세청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세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하여, 국내로 반입되어서는 안될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부터 6개 부처와 시행하고 있다. 18일부터는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및 합동검사로 폐기물 반입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ad More](#)

3.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 판정

무역위원회는 9월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日·EU EPA 체결, 車 관련 폴란드 수출에 타격

일본과 EU의 EPA 체결로 우리 기업은 對폴란드 수출이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과 EU는 EPA 체결로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의 관세를 대부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EU는 일본産 승용차에 기존 관세 1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은 대부분 즉시 철폐하는 것에 합의했다. KOTRA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을 대비해 품질 개선 및 가격 전략 재수립, 현지 마케팅 활동 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ad More](#)

2. 中, 수입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엄격해졌다

KOTRA는 중국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지면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9월 7일 소개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수입 전기·전자제품에는 반드시 유해물질정보를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기기계와 통신설비 관련 수입제품 중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관리방법’규정을 어겨 불합격 판정 받은 제품은 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환경사용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제품이었다.

[Read More](#)

3. ‘Made with USA’ 덕에 우리 부품 날개 달까?

KOTRA는 9월 19일 시카고에서 ‘글로벌 파트너링 USA 2017’을 열었다. 글로벌 파트너링은 우리 부품기업이 해외 글로벌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KOTRA의 대표 사업이다. KOTRA는 참가 기업 중 조선과 자동차 분야에 납품하는 기업이 상당수였으며, 최근 어려운 상황을 북미 등 시장다변화로 극복하기 위해 참가하였으며 현지 글로벌기업은 단순 납품을 넘어 공동기술개발, 제3국 진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우수 부품기업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한·미 FTA 폐기? 美 손실이 더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한·미 FTA 종료 시 미(美)측 손실이 더 클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종료되면 공산품의 경우 양국 모두 수출이 감소하겠지만 미국의 감소 폭이 더 커 우리나라의 연간 對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2억 6,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관세율 변화와 수입의 가격탄력성, 현재 수입액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對미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지만 MFN 세율이 미국보다 높아 오히려 흑자가 예상됐다.

[Read More](#)

2. 'FTA 체결 필수' 韓·中·日 한목소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9월 6일 중국 북경 후난호텔에서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CAITEC) 및 일본 일중산학관교류기구(JCBAG)와 공동으로 '제2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정형근 KIEP 동북아경제본부장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의 경제협력은 역내무역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돼 왔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d More](#)

3. 한·이스라엘 FTA 체결 시 최대 수혜품목은 車와 가전제품

이스라엘 경제지인 Calcalist는 우리나라의 對이스라엘 수출 유망품목으로 무관세 품목인 휴대전화와 TV 외에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을 꼽으며 양국 간 FTA 체결 시 해당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가능성이 커 최대 수혜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는 우리나라의 對이스라엘 유망품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하며, 자동차는 관세율 부과에도 일본과 유럽産 자동차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높아 이스라엘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소개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